# 차 례


제1과. 태양절 .................................... 2
제2과. 만경대고향집 .................................... 3
제3과. **김일성**대원수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 .......... 4
제4과. **김일성**대원수님의 어머님이신 강반석선생님 .......... 5
제5과. **김일성**대원수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선생님 ............ 6
제6과. **김일성**대원수님의 삼촌이신
김형권선생님과 동생이신 김철주선생님 .............. 8
제7과. **김일성**대원수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과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 ............ 9
제8과. 자랑많은 만경대 ................................ 10
제9과. 즐겨부르신 노래 ................................ 16
제10과. 집안어른들앞에서 하신 대답.................... 17
제11과. 《조선독립》.................................. 18
제12과. 축음기를 뜯어보신 이야기...................... 19
제13과. 아이들이 나쁜 장난을 하지 않게 .............. 21
제14과. 썰매바위이야기................................ 23
제15과. 어머님과 하신 약속............................ 25
제16과. 제일 아름다운것이 뭐냐........................ 28
제17과. 《이 참외는 누가 먹나요?》.................... 30
제18과. 무지개잡이.................................... 32
제19과. 셈세기를 배워주시며............................ 35
제20과. 집안일을 도우시여.............................. 38
제21과. 밭김을 매시며.................................. 40
제22과. 할아버님께 먼저 드리신 복숭아.................. 42
제23과. 숨박곡질놀이를 하시며.......................... 45
제24과. 《나야 이제 또 캐면 되지요》.................. 48
제25과. 《어머니, 이 대추를 좀 잡숴보세요》............ 50
제26과. 《여긴 어머니 자리야요》...................... 53

# 제 1과
# 태 양 절



# 제 2과
# 만 경 대 고 향 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

# 제 3과
# 김일성대원수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



만경대순화학교



강동명신학교

# 제 4과
# 김일성대원수님의
# 어머님이신 강반석선생님



칠골외가집

# 제 5과
# **김일성**대원수님의
#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 할머님이신 리보익선생님



집안어른들이 쓰시던 농기구들



집안어른들이 쓰시던 베틀





집안어른들이 쓰시던 독들

# 제 6과

# **김일성**대원수님의 삼촌이신 김형권선생님과 동생이신 김철주선생님






작전터와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원들이
빼앗아 리용한 자동차

# 제 7과
# **김일성**대원수님의 외할아버지님이신 강돈욱선생님과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



창덕학교

# 제 8 과
# 자랑많은 만경대




만경대전경도


씨름터
학습터
무지개잡이소나무
낚시터



썰매바위



군함바위



그네터



낚시터



무지개잡이소나무



학습터




씨름터



샘물터

# 제 9과
# 즐겨부르신 노래

아버님께서는 나어린 **김일성**대원수님께 노래를 지어 배워주시였습니다.

조선의 아가야
우리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서
얼른 잠간 소학교
가정에는 효자동
이웃에는 화목동
나라에는 영웅동
우리 나라 영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이 노래를 즐겨부르시며 굳세게 자라시였습니다.

# 제 10과
# 집안어른들앞에서 하신 대답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5살 나시던 때였습니다.

어느날 아버님께서는 집안어른들에게 일제놈들이 조선사람들을 마구 잡아죽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할아버님께 물으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장수가 될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아버님께서는 그걸 왜 묻는가고 하시였습니다.

《힘센 장수가 되여 왜놈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그래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먹을 굳게 틀어쥐고 대답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 왜놈들을 쳐부실 굳은 결심을 다지시였습니다.

## 제 11과
## 《조선독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5살 때부터 우리 글을 배우시며 글의 뜻을 새기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붓글씨도 자주 씌우시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크게 쓰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글자가 빼앗긴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말씀을 새기시며 《조선독립》,《조선독립》하고 큰소리로 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나라 찾을 큰뜻을 키우시며 자라시였습니다.

## 제 12과
## 축음기를 뜯어보신 이야기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축음기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를 들으시였습니다.

축음기에서는 재미나는 노래가 계속 울려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개타령이 나오면서 이따금씩 《멍멍》 하고 개짖는 소리까지 나

왔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축음기안에 사람이 들어가 개소리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개가 소리를 낸다고 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마을사람들이 돌아간 다음 축음기를 뜯어보시였습니다.

그안에는 사람도 개도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시였던 아버님께서 물으시였습니다.

《증손아, 그래 그속에 개가 있더냐?》

그러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없어요. 개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대답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르는것은 제힘으로 알아내시였습니다.

# 제 13과
# 아이들이 나쁜 장난을 하지 않게

이른봄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침공부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시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날마다 씩씩하게 뛰놀던 동무들이 한곳에 모여 해빛만 쪼이고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에게 왜 이렇게 앉아만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자 한 동무가 나서며 만경봉에서 불놀이를 하다가 어른들에게 욕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정말 큰일날번했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불놀이를 하지 말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만경봉의 나무들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이 심고 가꾸어오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이어 나무를 잘 키워야 만경대가 더욱 아름다와진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불놀이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하시며 새끼로 멋진 공을 만드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날 동무들과 함께 공차기를 하시며 즐겁게 노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이 나쁜 장난을 하지 않게 잘 이끌어주시였습니다.

# 제 14과
# 썰매바위이야기

만경대고향집뒤에는 썰매바위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 여기에서 미끄럼을 타며 노시였습니다.

그런데 썰매를 타시면서부터 옷이 빨리 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바지밑에 소나무아지를 깔고 썰매를 타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바지가 덜 해지고 놀이는 더 재미났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여나보니 할머님께서는 물레로 실을 뽑고 어머님께서는 무명을 짜고계시였습

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생하시는 할머님과 어머님을 생각하시여 다음날부터 썰매타기를 아예 그만두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왜 썰매바위타기를 하지 않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니, 옷이 해져 그만뒀어요.》

**김일성**대원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어머님께서는 썰매바위타기를 그냥 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새끼로 똬리를 만들어주시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더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과 함께 다른 놀이

를 하시면서 재미나게 노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부모님들을 위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시였습니다.

## 제 15과
## 어머님과 하신 약속

어느해 봄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칠골외가집에 가시였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는 시내로 들어가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증손아, 점심때면 돌아올테니 동무들과 잘 놀고있어라.》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떠나신 뒤 동무들과 재미나게 노시였습니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자 동무들은 밥을 먹으러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문밖에 서시여 어머님을 기다리시였습니다.

외할머님께서는 어서 들어가 점심밥을 먹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니도 점심을 못 잡수시였다고 하며 들어가지 않으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외할아버님께서 나와 들어가자고 하시였습니다.

《안야요.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점심을 먹자고 약속을 했어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내 들어가지 않으시였습니다.

그처럼 기다리던 어머님은 점심때가 퍽 지나서야 돌아오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이 많아서 늦어졌다고 하시며 점심밥을 못 먹었겠다고 걱정하시였습니다.

《어머니, 일없어요. 그걸 이리 주세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어머님의 보퉁이를 받아드시였습니다.

이날 외가집에서는 어머님께서 돌아오신 다음에야 다같이 점심밥을 잡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한번 약속한것은 꼭꼭 지키시였습니다.

# 제 16과
# 제일 아름다운것이 뭐냐

살구꽃, 복숭아꽃이 활짝 핀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재미나게 뛰노시다가 복숭아나무밑에 앉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나 하고 **김일성**대원수님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바라보며 물으시였습니다.

《그래, 너희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것이 뭔지 대답해봐라.》

그러자 한 동무가 복숭아꽃을 쳐다보며 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꽃도 아름답지, 그런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것은 없을가?》

이번에는 다른 동무가 일어서며 그건 춤 잘 추는 나비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무의 대답을 들으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비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것이 있지 않는가고 하시였습니다.

《그건 노래 잘하는 꾀꼴새지.》

또 다른 동무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꽃도 나비도 새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것은 우리 고향 만경대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운 꽃도 예쁜 나비와 새들도 다 만경대에서 살고 맑고 푸른 대동강도 만경대를 굽이돌아 흐르니 만경대가 제일 아름답다고 하시

였습니다.

그리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경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함부로 꺾지 말고 잘 가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에게 만경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시였습니다.

## 제 17과
## 《이 참외는 누가 먹나요?》

어느해 여름날이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시는데 지주놈이 나타났습니다.

욕심많은 지주놈은 크고 잘 익은 참외를 골라 따서 당장 바치라고 호령질

하였습니다.

이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할아버님의 일손을 도우시려고 밭으로 나오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나어린 **김일성**대원수님께 참외를 쥐여주고싶었지만 지주놈때문에 주지 못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밉살스러운 지주놈을 쏘아보며 할아버님께 물으시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참외는 누가 먹나요?》

할아버님께서는 지주놈을 가리키며 말씀하시였습니다.

《 참외농사는 우리가 지었지만 놀고먹는 저놈의 지주가 다 빼앗아먹는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먹고 사는 지주놈이 미워나시였

습니다.

그래서 따놓은 참외들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흙을 쑤셔넣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놀고먹는 지주놈을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시였습니다.

# 제 18과
# 무지개잡이

어느해 여름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순화강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노시였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소나기가 쏟아져내렸습니다.

퍼붓던 소나기는 얼마 지나서 뚝 멎고 무지개가 곱게 섰습니다.

《야, 무지개!》

무지개의 한끝은 고향집의 지붕우에 걸려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무지개를 잡으시려고 집으로 막 달려가시였습니다.

집앞에 이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키높은 들메나무우로 오르시였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벌써 자리를 옮겨 만경봉소나무가지에 걸려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들메나무에서 내려 만경봉으로 치달아오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높은 소나무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어느새 또 자리를 옮겨 하늘높이 떠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소나무우에서

고향마을을 내려다보시였습니다.

무지개가 선 만경대는 정말 아름다왔습니다.

이날 저녁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 고운 무지개를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고 춤추며 사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싶다고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기뻐하며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네가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도 무지개잡이를 하던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그리시면서 무지개가 왜 자꾸만 자리를 옮겨가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드님께 그것을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큰뜻을 키우시였습니다. 그리고 모를것이 있으면 물으시여 꼭꼭 알고넘어가시였습니다.

## 제 19과
## 셈세기를 배워주시며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군사놀이에 앞서 동무들을 한줄로 세우신 다음 편을 가르려고 번호를 부르게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동무들이 자기 번호를 잘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에서 다섯까지는 제대로 불렀지만 여섯부터는 번호가 뒤바뀌군 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오늘만은 번호를 잘 부르지 못한 동무들도 군사놀이에 넣어준다고 하시였습니다.

군사놀이가 끝났을 때에는 동무들에게 집에 가서 셈세기련습을 잘해오라고 하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시 줄을 세우고 번호를 불러보게 하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동무들이 번호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셈세기련습을 하겠으니 마른 나무가지를 10개씩 꺾어오라고 하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저저마다 마른 나무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도 나무가지를 꺾어서 자신의 앞에 나란히 세워놓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모든 동무들이 하나, 둘, 셋 하고 따라세며 자기앞에 세워놓은 나무가지를 하나씩 눕히게 하시였습니다.

우물로 가시던 어머님께서는 그옆을 지나가시다가 무슨 놀이를 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셈을 잘 세기 위해 동무들과 같이 산가지놀이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무들에게 셈세기를 계속 배워주시였습니다.

동무들은 이날 **김일성**대원수님의 도움으로 자기 번호를 척척 부르게 되였

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에게 셈세기를 잘 배워주시였습니다.

## 제 20과
## 집안일을 도우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먼저 이부자리부터 거두시였습니다.

이부자리는 귀를 꼭 맞추어 곱게 개시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방안을 깨끗이 쓰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방안을 거두시고는 밖으로 나와 마당을 쓸어내시였습

니다.

마당을 쓰실 때면 어지러운 곳이 없게 한쪽에서부터 모조리 쓸어나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쓸어모은 쓰레기를 삼태기에 담아다가 버리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마당을 쓰신 다음에는 닭장문을 열고 닭모이를 주시였습니다.

닭모이는 아무때나 주지 않고 꼭꼭 시간을 맞추어 주시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김일성**대원수님의 곁으로 닭들이 모여왔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닭모이를 주신 다음에는 닭알도 제자리에 꼭꼭 가져다 놓으시였습니다.

어떤 때에는 어머님을 도와 땔나무를 부엌에 날라들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집안일을 스스로 찾아하시였습니다.

# 제 21과
# 밭김을 매시며

무더운 여름 어느날이였습니다.

이날 어머님께서는 아침 일찍 김을 매러 밭으로 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도 어머님을 따라 밭으로 가시였습니다.

밭에는 크게 자란 풀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김을 매시면서 그런 풀들을 뽑느라고 몇번씩이나 호미질을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도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님을 도와 밭김을 매시

였습니다.

어머님앞으로 나가시며 큰 풀도 뽑고 뽑아놓은 풀을 안아다가 밭뚝에 버리기도 하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일은 퍽 덜어지게 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이 걱정되시여 이젠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참동안 김을 매시다가 어머님께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언제 이런 고생을 하지 않고 잘살수 있나요?》

어머님께서는 일손을 멈추시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일제와 지주놈이 없는 새 세상이 와야 우리가 잘살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날 밭김을 매시면서 일제와 지주놈이 없는 새 나라를 세우리라 굳게 다짐하시였습니다.

# 제 22과
# 할아버님께 먼저 드리신 복숭아

소나기가 내린 어느해 여름날이였습니다. 비를 맞은 산과 들은 더욱 푸르렀습니다.

할아버님께서 가꾸신 복숭아도 단비를 맞고 주먹만큼 커진듯 하였습니다.

할아버님을 따라 터밭으로 나가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는 복숭아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지, 복숭아가 참 많이 열렸어요. 하나만 딸래요.》

할아버님께서는 복숭아가 아직 익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더는 조르지 않으시고 할아버님을 도와 남새밭에 물도 주고 나쁜 벌레도 잡아주시였습니다.

복숭아가 익어가자 동무들이 찾아와 복숭아를 따먹자고 졸랐습니다.

그때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을 타이르시였습니다.

《아직도 덜 익었어, 다 익거든 따먹자.》

어느덧 복숭아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 복숭아를 따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제일 크고 잘 익은 복숭아를 골라 할아버님께 먼저 드리신 다음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께 차례로 드리시였습니다.

그다음에야 동무들과 함께 나누어 잡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웃어른들을 존경하시였습니다.

# 제 23과
# 숨박곡질놀이를 하시며

달밝은 어느날 저녁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고향집뜨락에서 숨박곡질놀이를 하시였습니다.

술래를 서는 아이가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하고 셈을 셌습니다. 그사이에 동무들은 저마다 몸을 숨겼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고향집울안에 있는 장독뒤에 숨으시였습니다.

술래를 서는 아이는 열까지 세고나서 동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장독뒤에 숨으시였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꽃나무를 흔들어놓으시였습니다.

그리자 술래를 서는 아이는 흔들거리는

꽃나무를 보고 그곳으로 뛰여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느새 뒤울에 있는 박덩굴속에 숨으시였던것입니다.

그 아이는 동무들을 찾아 또다시 뛰여다녔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지켜보시다가 이번에는 박넝쿨을 흔들어놓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앞뜨락에 있는 호박덩굴뒤에 살짝 숨으시였습니다.

술래를 서는 아이는 다른 동무들은 다 찾았으나 **김일성**대원수님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무들이 떨쳐나서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무들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곳에 놀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하 하 하》 하는 큰 웃음소리가 들리였습니다.

동무들은 눈이 둥그래서 웃음소리가 나는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큰 살구나무우에서 동무들을 내려다보며 웃고계시는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숨박곡질놀이도 뛰여나게 잘하시였습니다.

## 제 24과
## 《나야 이제 또 캐면 되지요》

어느해 봄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냉이를 캐시였습니다.

그날은 찬바람이 불어 몹시 추웠습니다.

그래서 나어린 한 아이만은 냉이를 캐지 않고 몸을 옹크리고 앉아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애 곁으로 다가가시여 《너 추워서 그러누나.》라고 말씀하시며 입고있던 저고리를 벗어 그 아이에게 씌워주시였습니다.

어린 아이는 너무도 고마와 어쩔줄 몰라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내가 냉이를 캐여줄테니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얇은 홑적삼을 입으신채 다시 냉이를 캐기 시작하시였습니다.

냉이를 한참 캐시다가 아이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다 모여오자 캐신 냉이를 깨끗이 다듬어 아이들의 수만큼 꼭같이 나누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시였습니다.

옆에 있던 동네어른이 그렇게 다 나누어주면 가질것이 없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나야 이제 또 캐면 되지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다시 냉이를 캐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시였습니다.

## 제 25과
## 《어머니, 이 대추를 좀 잡숴보세요》

어느해 겨울이였습니다.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시던 어머님께서 그만 앓아눕게 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밤이 깊도록 어머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돌봐드리시였습니다.

할머님께서 하시는대로 어머님의 손발도 주물러드리고 찬수건으로 머리도 식혀드리시였습니다.

그러나 열은 떨어지지 않고 어머님

의 입술은 점점 말라들어갔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더운물을 떠다가 어머님께 올리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더운물이야요. 어서 좀 마시세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힘없이 고개만 저으시였습니다.

이때 할머님께서 김이 몰몰 나는 미음을 가져오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손을 잡아일으키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쑤신 좁쌀미음이야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생각하여 미음을 좀 드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기침을 몹시 하시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기침엔 대추가 약

인데…》 하고 말씀하시였습니다.

할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곧 대추를 가져다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니, 이 대추를 좀 잡숴보세요.》

그 대추는 지난해 가을 할아버님께서 주신것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것을 잡수시지 않고 두시였다가 이날 어머님께 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대추를 잡수시고 며칠후 자리에서 일어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뜨겁게 위해드리시였습니다.

# 제 26과
# 《여긴 어머니 자리야요》

어느해 추운 겨울날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바느질을 하시는 어머님곁에서 장수팽이를 깎고계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바느질을 하시다가 이따금 《호-》 하고 입김으로 손을 녹이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얼른 일어나 화로를 안아오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부저가락으로 재를 헤치시였습니다.

잠간사이에 재속에서 빨간 불찌가 피여났습니다.

《어머니, 불을 쪼이세요.》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차거운 손을 화로불에 가져다가 쪼여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커가시면서 어머님을 더 잘 모시였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천을 짜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군 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주무시지 않고 등잔불심지를 돋구어드리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일을 끝내고 베틀에서 내려오시면 얼른 베개를 내리워 따뜻한 아래목에 놓으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여긴 어머니 자리야요.》

그리시고는 어머님의 손을 끌어당기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이 너무 대견하시여 품에 꼭 껴안아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우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1학년용)
제4판

집 필 부교수 강홍수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계순희 콤퓨터편성 전명희
장 정 류명심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13일
4판인쇄 주체10 (201 )년 월 일 4판발행 주체10 (201 )년 월 일

교-12-보-143 값 원